

영원한 도움

소식지 Vol.1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본 이미지(사진))는 작가와의 협의에 따라 본 소식지의 표지로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무단전재와 부분활용을 금합니다

VOL.1

발행일 2025년 3월 1일

발행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교회

발행처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15라길 2-18

전화 (02) 2171-1611

메일 solph70@hanmail.net

홈페이지 <https://www.solph.or.kr>

인쇄처 세가출판사

비매품

03 권두언 | 희망의 순례자

마음을 드높이

- 06 교회와 함께 | 이 시대에 성덕이란 무엇인가?
- 10 말씀과 함께 | 나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해
- 14 묵상과 나눔 | 아훼 이레
- 17 가톨릭 상식 | 한국교회 축성생활의 해
- 18 책과 함께 | 〈기도를 그리다〉
- 20 문화 속으로 | 뮤지컬 〈루카스〉

모든 이에게 모든 것

- 24 선교 화보 | 베트남
- 26 선교 이야기 |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신비로운 만남-
꿈을 가진 아이들과의 아름다운 동행
- 30 선교 체험 |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36 선교지 소식 | 페루 · 카자흐스탄 · 필리핀
- 41 후원회 이야기
- 44 사도직 이야기 | 사회복지법인 명회원

한마음 한뜻

- 52 수교회 소식
- 56 성모자매회 소식
- 62 수도원 체험 | YOU, 희망의 순례자-
하느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 64 후원자 명단
- 66 선교지 주소

희망의 순례자



2025년에도 『영원한 도움』 가족에게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울부짖고 있으며, 폭력과 분열은 절망으로
빠지게 하고,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감과 공포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희년을 살면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고,
모든 이를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현실이라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간직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기쁨입니까?

『영원한 도움』은 곳곳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고
성모님과 함께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수녀들과 봉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에 동참하는 분들과 희망의 열매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부디 이 은총의 잔치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부터 『영원한 도움』은 우리 수도회의 회지와 국내외 선교 소식지
그리고 재속회인 성모자매회의 소식지를 통합하여 계간지로 재탄생합니다.

이 작업에 참여하는 수녀들과 성모자매회원들의 사랑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도움』 가족 여러분!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로마 12,12) 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희망을 널리 전파합시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총원장 나현오 현오레지나 수녀





마음을 드높이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느님의 빛은 일상에 대한 걱정으로
흐릿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란 ‘핑계 대지 않고,
나를 정당화하지도 않으며,
가식 없이 하느님께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시도록 내어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하느님과 다가올 세계〉 중에서-



“이 시대에 성덕(聖德)이란 무엇인가?”

양성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참행복을 선언하시면서 기록해진다는 의미를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행복선언은 그리스도인에게 신분증과 같습니다. 참 행복 안에서 우리는 스승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스승님의 얼굴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습니다. 따라서 ‘행복한’이라는 말은 ‘기록한’이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복음은 우리가 삶의 평안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 알려면 우리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초대합니다. 부자는 대체로 자신의 재물에 안심하지만, 부

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거룩한 불편심(不偏心)”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빛나는 내적 자유로 이끕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치우치지 않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 의지에 허락되어 있고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에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곧 성덕입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마태 5,4)

세상은 슬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무시하는 편을 택하고 이를 덮어 두거나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물을 참으로 존재하는 그대로 보고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은, 삶의 깊은 곳까지 다다를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위로받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용기를 낼 수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해 달아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 곧 성덕입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마태 5,5)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이를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른 실천 방식인 온유함을 제시하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무 온유하면 사람들은 나를 바보 또는 나약한 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때로는 그렇게도 여길 수 있지만 그냥 놓아두십시오. 온유한 편이 언제나 낫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깊은 갈망이 충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한 사람들은 주님께 희망을 둡니다. 또한 주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온유한 사람들을 신뢰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응대하는 것이 곧 성덕입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마태 5,6)

굶주림과 목마름은 강렬한 경험입니다. 기본 욕구와 생존 본능에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것처럼 열렬히 정의를 바

라고 의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참된 정의는 사람들이 각자 내리는 결정에서 의로울 때에 그들 삶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위한 공정을 추구하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 곧 성덕입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자비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베풀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베푸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넘쳐흐르게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의 완전하심을 조금이나마 우리 삶에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사용하는 그 ‘되’는 우리가 용서받는 데에도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데 사용하는 그 ‘되’로 우리가 하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측량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

이 곧 성덕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마태 5,8)

이 참행복은 소박하고 깨끗하며 때 묻지 않은 마음을 지닌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은 그 사랑을 해치고 약화시키거나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것도 자기 삶에 들어오게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잠언 4,23) 거짓으로 더럽혀진 것은 그 무엇도 주님 보시기에 참된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러한 사랑이 공허한 말이 아닌 진정한 원의일 때, 그 마음은 깨끗한 것이며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더럽히는 온갖 것들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성덕입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복음적 평화의 ‘건설’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적 평화는 아무도 배척하지 않고 다소 이상한 사람,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 서로 다른 사람, 삶에 지친 사람, 그저 무관



심한 사람조차 포용합니다. 복음적 평화는 갈등을 무시하거나 숨기려는 시도가 아니라, 반대로 “갈등을 기꺼이 받아들여 해결하고, 이를 새로운 전진의 연결 고리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건설하는 일은 평정심과 창조성과 감수성과 기술을 요구하는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곧 성덕입니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10)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정의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가 어떤 힘들고 고통스

러운 경험을 하더라도, 그 십자가는 성장과 성화의 원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을 위하여 견뎌 내야 하는 고난은 정확히 박해를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박해는 과거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현대 성인들의 경우가 그러하듯 피를 흘림으로써 박해를 당하든, 다른 교묘한 수단 곧 비방과 거짓말로써 박해를 당하든 오늘날에도 우리는 박해를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줄지라도 날마다 복음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성덕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67~94항 중에서

“나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해” 루카 19,31 참조

양성부 허수진 수진루시아 수녀



피에트로 로렌체티,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1320년 작품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수많은 ‘필요’들이 있다. 특히 자본주의 경쟁 사회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해 온 우리는 일을 처리하거나 사람을 판단할 때 쉽게 필요, 쓸모, 효용성을 따진다. 수도 생활 안에서 허약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십자가는 ‘하느님의 힘’(1코린 1,18)이라고 배우고 고백하지만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약함과 어리석음은 늘 견디기 어려운 도전이 되고 갖가지 부족과 결핍들은 쉽게 불평과 짜증으로 이어진다.

너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던 그때(루카 19,28-40 참조)도 마찬가지였다. 루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여정은 하느님 나라의 선포가 시작되었던 갈릴래아에서 출발하여, 십자가의 수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었다. 그렇기에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을 안고 담대히 앞장서 나아가신다. 주님과 공생활을 함께 걸었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한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이 여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큰 시련이 닥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런저런 준비와 나뉘는 ‘필요’들이 많았을 것이다.

나를 비롯하여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제자들이 서로를 챙기며 묻는다.

“너는 무엇이 필요하니?”

베드로는 만약을 대비하여 칼 한 자루를 챙기기도 하고 각자가 자신의 처지와 약함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다. 나 역시 열심히 메모까지 해 가며 소위 ‘주님을 따르려면’ 혹은 감히 ‘주님께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내게 지금 ‘~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꼼꼼히 챙긴다. 따져보기 시작하니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은근히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다 문득 주님께도 여쭙어봐야 할 것 같아서 물었다.

“주님!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중요한 때에 당신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원전 7세기 중반 작품

이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에 주님은 너무나 맑고 겸손하게 한마디를 하신다.

“나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해.”(루카 19,34 참조)

이 뜻밖의 대답에 저마다의 ‘필요’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던 제자들 사이에는 순간 정적이 흐르지만 짜증 가득한 내가 참지 못하고 속사포처럼 폭발을 한다.

다 함께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엣! 뭐라고요? 어린 나귀요? 그건 어디다 쓰시게요? 타고 가시려면 말 한 마리든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것이 더 빨라욧!!”

내친김에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을 다 쏟아 놓는다.

“주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바리사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주님을 잡으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주님께서 그토록 애쓰셨던 모든 것, 하느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보여 주셨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너무나 인자하고 평온한 주님의 모습 앞에서 잔뜩 긴장하고 펄펄 뛰는 나 자신이 무색해졌다. 그리고 곰곰이 헤아리기 시작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중요한 때에 별 쓸모도 없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가 ‘필요’하시다고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다. 그분을 만났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세상은 잘나고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어디에서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허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 예수님이 정말 좋았고,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어 제자들과 함께 따라나선 길이었다.

평온하고 온유한 주님 앞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망연히 주저앉아 있는 내게 주님은 자상히 말씀하신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야 허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잖아. 내가 빨리 가면 그들이 따라올 수 없으니까, 내 걸음의 템포는 가장 더디게 걷는 이들에게 맞추어야 하니까….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빨리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 함께 가는 것이 목적이라서 그래.”

거룩한 복음의 방식과 스마트한 세상의 방식

그분의 맑고 겸손한 가난은 나의 욕심 사나운 마음과 고집을 드러낸다. 있는 힘껏 용을 쓰며 내가 옳다고, 내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주님의 겸손한 가난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또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난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동시에 불편하고 성가시며 별 효과가 없어 보이는 ‘가난한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복음 선포’라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복음의 방식’이 아닌, 좀 더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은 유혹에 번번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유혹의 핵심은 단순히 일 처리 방식에 있지 않고 삶의 주도권에 있다. 하느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삶의 중심에는 하느님 혹은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난한 이들이 있지 않고, 나의 방식과 뜻 즉,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감히 내가 주장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한다.

결국 더디고 쓸모없어 보이는 ‘어린 나귀’는 그분이 온 생애를 바쳐 일구시고 선포 하였던 그 하느님 나라로 가는 ‘복음의 방식’이며 ‘길’(요한 14,6)인 것이다.

새봄의 기운과 함께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작!

올해도 어김없이 겸손되어 어린 나귀 타시고 앞장서 가시는 ‘어린 양이신 주님’을 조용히 한걸음 따라나서 본다.(요한묵시록 14,4 참조)



하느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야훼 이레” 창세 22,14

유선미 힐데가르트 수녀



필리핀 카비테 공동체 사랑의 선교회 수사들과 함께(왼쪽 첫 번째가 필자)

2024년부터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는 종신서원을 앞둔 수도자들에게 해외 선교지 체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필리핀 쿠바오 분원을 거점으로 나보 따스 분원과 사랑의 선교회 수사들이 운영하는 카비테 공동체, 노발리체스 공동체에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하고 온 제89회 종신서원반 유선미 힐데가르트 수녀의 목상을 나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찬미의 기도

무더위, 모기떼와 온갖 벌레들의 공격 등 낮선 환경에 대한 걱정과 언어와 소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장한 가운데 필리핀 카비테 공동체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무색할 정도로 해맑게 다가왔고, 경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웃음과 눈빛에 모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낮선 환경도 언어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비테 공동체는 사랑의 선교회 수사들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중증장애를 지닌 10대 소년과 20대 청년 남성을 위한 생활 공동체입니다. 몇몇은 어릴 때 이곳에 와서 중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도우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침대 쇠창살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로 주변은 늘 소란스러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가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비 오던 날, 혼자 걷지 못하는 아이를 부축해 함께 산책했습니다. 아이는 지붕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고 가만히 손을 내밀어 그 감촉을 느꼈고, 그 순간 아이의 환희에 찬 표정과 우리를 감싼 평화로운 분위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과 함께하는 성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성체 앞에 앉아 성가를 부르고 묵주기도를 드리는 시간. 어눌한 발음, 부정확한 음정이지만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사이로 “헤이! 헤이! 헤이!” 하는 추임새와 ‘탁, 탁’ 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을 흔들거나 반복적으로 손으로 제 머리를 치는 아이,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찬미의 기도가 하느님께 바쳐지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마을에서 천사같은 아기와 함께 지낸 하루



카비테 공동체에서 사랑스런 눈맞춤으로 아기와 소통하고 있는 힐데가르트 수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함께 있는 것

장애로 어려움은 있지만 이곳에서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이었고, 그 자체로서 하느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울컥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를 지나다 보면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수사님이 아이들 사이에 함께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수사님은 ‘그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저도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함께 있어 주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함께 있음으로 느껴지는 평화와 충만함, 고요한 기쁨을 저도 체험하게 되었고 그것은 분명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머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선교는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필리핀 해외 선교지에서의 가장 큰 체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감히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은총과 ‘야훼 이레’(창세 22,14)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마련하신 하느님과 수도공동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든 하느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한국교회 축성생활의 해’는 수도자들만 지내는 것인가요?



한국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2025년 희년’과 더불어 ‘한국교회 축성생활의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축성생활은 ‘서원을 통하여…세 가지 복음적 권고(정결, 청빈, 순명)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삶’을 의미하며, 이는 ‘복음적 권고의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신분’(교회 헌장, 44항) 즉 수도자를 포함하여 복음적 권고를 서약하는 모든 이-사도생활단, 재속회원, 은수자 등-에게 해당합니다.

2024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 지내게 되는 ‘축성생활의 해’를 통해 한국교회는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희년을 지내며 교회를 위한 은혜로운 선물인 축성생활의 의미를 더 잘 알고 감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자들은 각자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소명에 대한 충실성 및 진정성을 보존하고 강화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신비가와 예언자로 거듭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를 그리다”

성서와함께 편집실 장윤이 마리아카페 수녀



글·그림 배영길 | 성서와함께

날마다 주님을 그리다

새해를 맞아 저마다 목표하고 결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는 결심 혹은 사순시기를 맞아 평일 미사에 더 자주 참례하겠다는거나 아침·저녁기도를 거르지 않겠다는거나 묵주기도를 더 많이 바치겠다는거나 하는 기도 결심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무엇이든 새해에 한 결심 단 한 가지라도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면 박수를 보낸다. 마음을 먹기는 쉽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4년간 날마다 그림을 그려 온 사제가 있다. 이 책의 저자 배영길 신부가 그 주인공이다. 그에게 그림은 예술이나 취미 활동이 아니라 기도의 연장이다. 예수회원들은 날마다 이냐시오 영신수련으로 묵상과 관상을 하고 나면 15분 정도 기도 성찰을 하는데, 저자는 그때 그림을 그리고 짧은 글을 덧붙인다. 그에게 그림은 ‘기도를 그리는(draw)’ 것이기도 하고 ‘주님을 그리는(long for)’ 것이기도 하다. 이 책 〈기도를 그리다〉는 예수님의 강생과 공생활, 수난과 부활에 관한 기도 그림을 골라 묶은 것이다.

소박하고 단순한 나만의 응답

초기 양성기에 읽은 어느 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구절을 읽고 기뻐던 기억이 있다. 초기 양성기는 교회와 수도회 전통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기도를 익히며 기도 생활의 틀을 잡아가는 시기이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살던 사람에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런 나에게 이 구절은 형식과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기도의 본질임을 일깨워 주었다.

사순시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이 사랑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 구원의 신비로 들어가도록 초대받는 은총의 때이다. 저자 배영길 신부는 이 책이 아직 기도 방법을 찾지 못했거나 형식에 매여 기도가 메말라 버린 이들에게 새로운 영적 여정을 제시하고, 삶에 지친 이들에게는 영적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한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까? 소박하고 단순한 나만의 응답을 드릴 힌트를 이 책에서 찾길 바란다.



함께 공감 나누기 해봅시다

- ① 새해 혹은 사순시기에 했던 기도 결심을 점검해 봅시다. 아직 결심한 바가 없다면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 봅시다.
- ②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복음 속 장면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뮤지컬 <루카스>

김혜원 미카엘라(피엠펙처스 대표, 성모자매회원)



제목 | 창작 뮤지컬 <루카스(LUCAS)>

제작 | 문화감각

기획 | 문화행동 아티스, 광야아트센터

공연 장소 | 광야아트센터

공연 기간 | 2024년 9월 27일(금)~2025년 5월 17일(토)
월, 화, 목, 금 오후 7시30분 / 수 오후 2시 /
토, 공휴일 오후2시, 6시

공연 시간 | 110분

예약 | 네이버

문의 | 02-741-9182

기적 같은 삶의 감동 실화

선천성 뇌 기형으로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 아이, 루카스가 기적처럼 이 세상에 머물렀던 17일 동안의 이야기, 네덜란드 출신 헨리 나우웬 신부가 말년을 함께 지낸 발달장애인 공동체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뮤지컬 <루카스>이다.

<루카스>는 2006년 11월, 11일간의 쇼케이스 공연으로 초연되었다. 하지만 ‘소극장 뮤지컬의 한계를 뛰어넘는 완성도와 감동’이라는 극찬이 입소문을 타면서 재공연 요청이 쇄도했고, 무려 18년 동안 소극장 뮤지컬로는 유례없이 관객 20여만 명을 동원했다. 또 오리지널 스토리가 중국에 수출되어 영화로 만들어졌고, 지난해 10월 개봉했다.

파혼 당한 청년 현우가 도망치듯 캐나다로 떠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캐나다

에 사는 친구가 휴양지라며 소개해 준 곳은 사실 발달장애인 공동체였고, 자원봉사자로 오해받은 현우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지내게 된다. 그러나 한시도 현우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장애인들, 무엇보다 제 이름조차 못 쓰는 발달장애인인 부부 앤디와 줄리는 ‘무책임한’ 임신을 한데다 태아의 기형으로 인해 산모가 위험한데도 아이를 낳으려 한다는 사실에 화가 치민다.

모든 게 못마땅하기만 하다. 커커이 쌓인 상처와 분노로 터지기 일보 직전의 화약고 같은 현우는 결국 공동체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폭발하고 만다. 그 와중에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나 탯줄을 자르고 15분이 지나도 기적처럼 숨을 쉬고 있는 아이로 인해 특별한 축제가 시작된다. 매일매일이 생일이고, 파티! 아이의 똥 기저귀를 서로 가지려고 다툼이 일어나고, 아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난리 법석이다. 이들을 바라보는 현우의 눈빛도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돌기 시작한다.

“루카스, 아빠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

탯줄을 끊기 전 아기를 살려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앤디의 간절한 울부짖음, 출생신고하러 간 앤디가 수없이 연습한 아이 이름 ‘루카스’를 직접 쓰는 모습, 그리고 공동체 사람들이 루카스와 작별하는 순간은 현우에겐 치유와 화해의 시간이었고, 관객들에겐 폭풍 눈물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앤디가 하늘나라로 떠난 루카스에게 “아빠가 되게 해줘서 고마워!”라며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에서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고 만다.

여린 생명 루카스는 이 모든 등장인물들의 갈등과 화해, 미움과 사랑의 중심에 서 있다. 루카스를 사랑했던 앤디는 순수함과 진정한 사랑으로 ‘발달장애인은 잔인한 하느님의 실패작’이라며 혐오했던 현우의 진정한 치유자가 된다. 스스로 ‘정상인’이라고 생각했던 현우의 오만이 치유되고, 점차 변해가는 현우의 성장 스토리는 이 뮤지컬의 또 다른 감동 포인트다.

7살 지능의 앤디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아들 루카스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보게 된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 수난을 당하게 하신 그 마음을 말이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세례 받은 모든 이가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멈추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매료되고
또 다른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어
생명을 낳는 관계를 맺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이도
쓸모없고 무의미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열매이기에
모두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이유입니다.”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273항
-2019년 10월 20일 전교주일
프란치스코 교황 담화 중에서-

문화체험으로 더 가까워진 베트남과 한국



피정을 같이한 나짱시또회 종신서원에정반 수사들과 함께
붕따우 시또수도원, 2024. 5. 12.



성탄 선물을 나누어주고, 산타할아버지와 기념촬영
호치민 수녀원 마당에서, 2024. 12. 21.



요셉다오 주교님 방문
득메누이꾸이 성지 주교님 집무실에서, 2024. 8. 31.



한국문화체험 물건사기 행사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수녀
화빈대학 남자기숙사 강당, 2024. 10. 25.



한국문화체험에서 물건을 사고 즐거워하는 한국어반 학생들
화빈대학 남자기숙사 강당, 2024. 10. 25.



베트남 예수회 마당에 있는 연탄 구유
베트남 예수회, 2024. 12. 21.



한국문화체험 행사에 참가한 베트남 신학생들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입학 준비 중)과 함께
화빈대학 남자기숙사 강당, 2024. 10. 25.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마르 10,16

김희자 마리뒀다 수녀



하느님께서서는 직접 선교가 허락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에서 우리 수녀들에게 현대의 가장 소외되고 힘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바로 전쟁을 피해 우리 유치원을 찾아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 유치원에는 중국인이면서 북한 말을 사용하는 아빠를 둔 아이를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 영국 등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10% 이상입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난생처음 들어 보는 베트남어와 낯선 사람들 속에서 적응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로 울음을 참거나, 말하고 싶어 입을 열지만 주변에 자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구글 번역기로 아이들과 소통을 시도해 봅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엉터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우스운지 잠시 울음을 그치고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잠깐의 웃음이라도 선사하기 위해 연극 무대에 선 광대의 몫을 하며 연민과 공감, 성모님의 애정으로 성심껏 동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하시어 불쌍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빨리 끝나서 아이들이 고국에 돌아가 옛 친구들과 마음껏 소리치고 뛰놀며 해맑은 웃음을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며 하느님의 축복 안에서

지난 해 성탄을 맞아 다낭 분원 세 수녀는 두 봉사자와 이곳 다낭에서 389km 떨어진 산골짜기에 있는 베트남 중부의 ‘꼰똌 자라이’ 소수민족 어린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선물 보따리 320개와 다낭 한인 공동체에서 준비해 준 옷 보따리를 35인승 차량에 싣고 긴 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그곳 아이들도 베트남어가 아닌 소수민족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는 어려웠지만, 살레시안 신부와 수사들이 방과 후 수업으로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간단한 인사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통 옷차림과 춤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준비한 선물을 나눠 주며 축복의 인사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 피난을 온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과는 달리, 안정된 구역에서 가족들과 평화로이 지내기에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해맑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버스에 오르는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옷은 다 해지고 몸집은 작지만,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마음껏 소리치고 친구들과 뛰놀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오순도순 모여서 저녁밥을 먹는,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끌어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가난한 어린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난하다고 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아름다운 미소, 기쁨과 평화를 우리는 그들에게서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비유에는 항상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비로운 만남 - 꿈을 가진 아이들과의 아름다운 동행”

김미라 마리앤 수녀



저는 약 4년 전에 베트남에 와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보내고 2022년 3월부터 가톨릭직업전문대학인 화빈대학 언어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 안에 직업고등학교가 있고 한국어를 신청하는 사람 대부분은 고등학교 신입생입니다.

첫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려는지 물어봅니다. 눈이 반짝반짝하는 학생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한국 가수가 좋아서? 한국에 여행 가려고? 유학 가려고? 90% 이상은 한국에 노동자로 일하러 가기 위해서 또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이 친구들은 가난한 시골에서 가톨릭 직업기숙학교를 찾아와 기술을 배우며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의 한 달 최저임금은 베트남 노동자의 거의 5~6개월 치 월급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베트남의 가난한 현실, 한국에 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알게 되고 더 정보를 찾아보며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 걸음 다가갑니다.

저의 서툰 베트남어와 아이들의 서툰 한국어가 만나 신비롭게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말보다 더 많이 전달되는 눈빛과 몸짓, 그리고 수줍어하며 한 번 더 말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에서 그들과 소통되는 신비를 체험합니다.

간절함에서 오는 신비의 체험

직업고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공부는 녹록지 않습니다. 낯선 언어에다 문법이 복잡해 읽기도,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외국어 수업은 일과가 끝난 저녁에 있습니다. 피곤한 눈을 부릅뜨고, 배고픔을 참으며 그날 배운 말을 따라 합니다. 가끔 초코파이나 사탕으로 아이들에게 달콤한 에너지를 주곤 하는데 그럴 때면 학생들 눈이 두 배로 커집니다. 아이돌 사진을 보여 주고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면 쏟아지던 잠이 쑥 달아납니다. 그래도 외국어는 너무나 높은 벽입니다. 그럼에도 그 벽을 넘어서는 간절함을 마주할 때면 길을 찾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만나는 신비를 체험합니다.

어느 날 학생들 삼 분의 일이 결석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축일인데 새벽에 미사를 못 해서 저녁 미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활, 성탄도 아닌데... 학생들 신앙에 저는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삶 전체가 주님 안에 있는 어린 친구들의 큰 신앙을 보며 누구보다도 부유한 친구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적 부가 아닌 신앙의 부를 가진 이 친구들과의 만남은 제 신앙에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수줍어서 크게 내뱉지 못하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틀린 표현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읽어 내고, 사랑의 말과 눈빛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긴장으로 인해 제가 주저앉지 않도록 용기를 청합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섭리와 신비로 그들을 만나고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기도를 청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루카 17,10



호 응우옌 이엔 니(마리아)

저는 베트남 다낭 전문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며 지내고 있는 호 응우옌 이엔 니 마리아입니다.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다낭 분원의 수녀님들이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수녀님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유치원을 설립한 수녀님들이 선생님들에게 하시는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여 전달하는 봉사를 합니다. 때로는 제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해 수녀님들이 주어 없이 말씀하시는 한국어 문장의 의미를 잘못 파악해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웃음으로 실수를 재미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전공자는 아니지만 어린이들과 놀아 주는 일도 합니다.

수녀님들은 항상 성모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을 살피고 열악한 환경과 가난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베트남 사람들보다 더 잘 찾아내어 도와주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수녀님들의 언어 전달자 역할과 선물 주머니를 채울 과자와 학용품 등을 구매하는 봉사를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큰돈을 써서 물건을 사 본 경험이 없어서 돈 사용하는 것이 조금 두려웠지만, 수녀님들이 저를 신뢰하고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봉사했고, 그러면서 제 삶이 밝아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물

받은 베트남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수녀님들과 신나게 포장 했습니다.

수녀님들이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특히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는 저는, 추방당할 수도 있는 위험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한국 수녀님들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좋으신 일을 하시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쁜 체험과 많은 교훈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녀님들과 함께 봉사하러 갈 때마다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체험을 합니다. 또한 베트남 어린이 중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음을 알고, 그런 가운데서도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우리를 반기는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수녀님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며 봉사하는 시간이 제가 받은 엄청난 선물이고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저의 수고보다 더 기쁜 체험과 많은 교훈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요한 4,16



응우옌 딘 끄엥(요셉)

베트남 호치민 수녀원 바로 앞집에 사는 끄엥 요셉 형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에서 장을 봐서 식재료, 생필품 등을 수녀들에게 가져다주고, 수녀원 정원과 화분 등을 관리하고 가꾸는 일을 도와 줍니다. 한국 수녀들이 잘 몰라서, 혹은 교통편이 불편해서 사기 어려운 베트남 음식과 식재료를 사서 수녀들에게 먹어 보라고 가져다주고, 채소나 과일도 어떻게 손질해서 먹어야 하는지 알려 주고, 더운 날씨에 화단이나 화분에 자주 쳐야 하는 농약과 비료를 뿌려 주는 등 갖은 일을 도맡아 해 줍니다. 소중한 은인을 만나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호치민 분원의 큰 은인 끄엥 요셉 형제를 간단한 인터뷰로 소개합니다.



(왼쪽부터) 은인인 끄엥 요셉 형제와 마리아� 수녀, 시릴로 수녀

1.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옌 딘 끄엥 요셉이라고 합니다. 1965년 1월 23일생으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님들의 베트남 호치민 공동체 바로 앞집에 사는 이웃입니다.

1. Vui lòng giới thiệu bản thân.

Con tên là Giuse Nguyễn Đình công.
Con sinh ngày 23 tháng 01 năm 1965.
Con là người hàng xóm của các cộng

đoàn Đức Mẹ Hằng Cứu Giúp ở Việt Nam.

2. 형제님은 언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들과 알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님들이 막 여기에 이사를 왔던, 약 5년 전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 두 수녀님은 바로 마리리타 수녀와 수은젼마 수녀입니다.

2. Chú Cường quen biết các sơ Đức Mẹ Hằng Cứu Giúp từ khi nào?

Con quen hai sơ mới về cộng đoàn Đức Mẹ Hằng Cứu Giúp. Đó là hai sơ Maririta và sơ Gemma.

3. 형제님이 수녀들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어땠나요?

두 수녀님의 첫인상은 너무나 유쾌하고, 잘 웃었으며, 온화했습니다.

3. Ấn tượng đầu tiên của chú Cường khi gặp các sơ là gì?

Ấn tượng đầu tiên khi con gặp hai sơ rất vui vẻ hai cười. Và dễ mến.

4. 형제님은 수녀들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채소, 과일,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수녀님들에게 드



과일과 야채를 사주는 꼬영 요셉 형제

리고, 수녀원 화초 가꾸는 것 등을 도와줍니다.

4. Chú Cường giúp đỡ các sơ như thế nào?

Con hay mua đồ cho mấy sơ. Như rau, trái cây và ít đồ dùng để nấu ăn. Con giúp đỡ chăm sóc cây trong vườn của nhà sơ V.V.



수녀원 나무 손질

5. 형제님의 이런 봉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녀님들이 잘 먹고 건강하여 하느님과 공동체를 위해 더 잘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5. Việc phục vụ này của Chú Cường có ý nghĩa như thế nào ?

Việc con phục vụ cho mấy sơ để mấy sơ ăn nhiều có sức khỏe để phục vụ cộng đoàn và phục vụ nhà Chúa.

6. 하느님께서 형제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 설탕, 젓갈, 소금 같은 식재료와 다른 물품들을 조금씩 사서 나누며 수녀님들을 돕는 것입니다.

6. Chú Cường nghĩ sứ mạng Chúa trao cho Chú Cường là gì?

Sứ mạng Chúa trao cho con là phục vụ người nghèo. Và giúp đỡ mấy sơ ít đồ ăn khi mấy sơ cần như rau, trái cây, đường, mắm, muối và ít đồ dùng khác.

7. 형제님이 이렇게 수녀들을 많이 도와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수녀님들을 도울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녀님들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작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닮은 우리는 하느님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을 실천하면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7. Chú Cường cảm thấy thế nào khi giúp đỡ các sơ nhiều như vậy?

Khi con giúp đỡ mấy sơ con cảm thấy vui vì mình đã có ít quà để giúp mấy sơ. Chúng ta, những người giống Chúa, tin rằng yêu thương như Chúa là điều chúng ta phải thực hành. Khi tôi thực hành tình yêu thương, tôi cảm thấy rất vui vẻ và hạnh phúc.

8. 형제님은 하느님께 보통 무슨 기도를 드리시나요?

하느님께 더 건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해서 돈을 벌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수녀님들에게 먹을거리를 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8. Chú Cường thường cầu xin Chúa là điều gì?

Con cầu xin Chúa ban cho con nhiều sức khỏe để con làm có tiền giúp đỡ người nghèo và mua trái cây cho mấy sơ.

9. 형제님이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주님은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수녀님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9. Chú Cường có thể kể cho chúng tôi nghe về tình yêu Chúa mà chú Cường đã trải nghiệm được không?

Con yêu mến Chúa. Chúa đã cho con nhiều sức khỏe để con giúp đỡ người nghèo và giúp đỡ mấy sơ.



선교지 소식 페루

2024년도 총 8차수 연수를 통해 70명 연수생을 만났고 연수봉사자 22명과 함께 하였다.



기도에 대해 강의하는 박정호 임마누엘 수녀



중남미 과테말라 창세기 5차 단체 사진

▲ 일자 2024년 2월 9일~11일 장소 과테말라 안티쿠아 Posada de Belen 피정의 집

참가자 연수생 28명, 봉사자 16명



중남미 페루 탈출기 6차 연수

◀ 일자 2024년 1월 12~14일

장소 페루 한인성당

참가자 연수생 16명, 봉사자 5명

페루 아마존 지역 뿌갈빠 청년 창세기 입문

▶ 일자 2024년 4월 13일





중남미(페루, 과테말라, 콜롬비아) 대표봉사자 만남의 잔치

▲ **일자** 2024년 5월 14일~20일 **장소** 콜롬비아 보고타

페루, 과테말라, 콜롬비아 대표봉사자 만남의 잔치를 통해 중남미 성서모임 회칙 작업과
말씀의 봉사자 선서식을 시작으로 중남미 성서모임의 토착화 작업 시작



중남미 페루 창세기 8차 연수

▲ **일자** 2024년 8월 9일~11일

참가자 연수생 7명과 봉사자 6명



중남미 아르헨티나 창세기 9차 연수

▲ **일자** 2024년 12월 13일~15일

장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참가자 이민자 3세 청년 9명

선교지 소식 카자흐스탄



축복받은 성경 읽기 '탈출기' 첫 모임

◀ **일자** 2024년 9월 15일

장소 딸띠꼬르간 성당

참가자 신자 9명과 알란 신부



유아 세례식 후 기념촬영

▲ **일자** 2024년 10월 6일

장소 딸띠꼬르간 성당



제투스시에서 '영적 일치의 날' 기념행사에 종교인 초대

▲ **일자** 2024년 11월 20일

장소 딸띠꼬르간 돔 드루주베



생활이 어려운 우슈토베 고려인 방문 및 식료품 나눔(15가구)

▲ **일자** 2024년 12월 14일

딸띠꼬르간 성당 청소년들과 성탄 사랑 및 비누 나눔 준비 작업



▲ 일자 2024년 12월 21일

장소 마리아의 집



유아세례 후 첫 성탄을 맞은 '베텔'과 함께

▲ 일자 2024년 12월 24일 성탄 미사 후



2025년 딸띠꼬르간 성당 청소년 캠프

▲ 일자 2025년 1월 2일~5일

장소 알마티 성당

참가자 청소년 10명

한글 교실 고려인들과 성탄 음식 나눔



▶ 일자 2024년 12월 27일

장소 마리아의 집

선교지 소식 필리핀



성탄파티 후 성탄 선물

◀ 일자 2024년 12월 21일
장소 프로퍼 급식소



깔로우간교구에서 사도직을 하는 수녀들·성탄모임 후 압보 추기경님과 함께 만남의 시간

▲ 일자 2024년 12월 14일 장소 깔로우간 교구청 회의실

유치원 소풍

▶ 일자 2025년 1월 27일
장소 마닐라 동물원



후원회 이야기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후원회의 새로운 출발

우리 수도회의 선교 사명 수행을 위한 평신도 협력은 직접적인 기도의 동참과 물질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오래 전부터 함께 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 수도회도 선교의 협력자인 후원자를 새롭게 인식하여 그들의 협력이 하느님의 선교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것임을 재조명하면서 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관리하고자 후원 담당자를 두어 새롭게 출발합니다.

■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선교 사도직을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국내 및 해외 선교)

① 성모자매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영성으로 자매적 사랑을 이어온 성모자매회는 54년의 역사 안에서 아낌없는 영적·물질적 후원과 함께 재속회로서의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의 후원은 당시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우리 수도회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후에도 우리 수도회가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체, 수련소 양성, 해외 선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② 성서사도직-온라인성경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되었던 온라인성경은 이제 새로운 비전이 되어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선포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사도직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끊임없는 연구를 위해 말씀의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③ 선교 사도직을 위한 개인 및 단체 후원자들

국내 선교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울주군나자렛공동체’, ‘부산 영원한도움의성모의집 해돋이공부방’, ‘H.O.M in 사강’, ‘H.O.M in 수지’, ‘H.O.M in 속초’, ‘영원한도움의집(돈암동)’ 등 국내의 빈민, 변방에 해당하는 미인가 사회복지나자렛 사도직을 후원합니다.

해외 선교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페루(칸또 그란데 지역, 비야 엘 살바도르 지역, 간가리 지역)’와 ‘필리핀 나보따스 빈민 지역’, ‘카자흐스탄 딸띠꼬르간 지역’, ‘베트남(호치민 투득 지역, 다낭 유치원)’ 등 열악한 해외 선교지를 후원합니다.

우리 수도회 초창기부터 꾸준히 국내 및 해외 선교 활동을 후원하며 영원한 도움의 손길을 펼쳐 온 후원자들은 늘 우리에게 성모님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성모자매회원들, 말씀의 봉사자들, 그리고 개인 또는 단체 후원자분들과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후원이 물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회의 카리스마와 영성을 함께 실현하는 것임을 알림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위한 선교 사명에 협력하는 ‘선교의 협력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자 목표를 새롭게 합니다.



■ 선교사명의 협력자인 후원회원 모집

우리 수도회 후원회는 기존의 후원회원들과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교류 관계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후원회원도 모집하고자 노력합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선교를 통한 하느님 나라 구현에 참여하게 되며,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도자들은 기도를 통해 후원회원들과 영적인 교류를 갖게 됩니다.

■ 후원회원들에게 드리는 영적 선물

후원회원이 되시면

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후원회원님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② 후원회원님들이 기도를 청하시면 매일 기도해 드립니다. ③ 매일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후원회원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④ 우리 수도회가 발행하는 계간 소식지 『영원한 도움』을 발송해 드립니다. ⑤ 신앙과 영적인 삶을 위한 ‘후원회원 돌봄 프로그램’에 초대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안내

후원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후원·관리 솔루션인 전산화 시스템 MRM(Memb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통해 후원 가입부터 납입, 기부금 영수증 발행까지 관리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회 가입과 후원 방법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홈페이지(<https://solph.or.kr/>) 접속 ⇒ 후원회 ⇒ 후원안내 ⇒ 후원하기 ⇒ 후원하기[후원 종류 선택 ⇒ 후원자 정보 입력 ⇒ 후원금 납입방법(CMS 자동이체 출금방식) ⇒ 후원완료: MRM 프로그램으로 자동 연동]





사회복지법인 명회원

“실천하는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온 민족과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 설립된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들의 다양한 사도직 소임지 중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사회복지법인 명회원’을 소개합니다.

의식주만을 해결하기 위한 단순 거주 시설을 넘어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을 통한 사회화를 돕는 교육의 장과 일터, 그리고 생활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명회원(이하 <명회원>)’. 이곳에서 우리가 처음 마주한 것은 멀리서 달려와 환하게 웃으며 반갑게 인

사하는 거주시설 장애인들, 아니 <명회원>의 ‘고객’들이었다. 이들이 ‘울곧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회에 공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명회원> 수녀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인터뷰 중인 수녀들과 성모자매회원들

참석자

방미애 아가페 수녀(거주시설 명회원 원장)
문선희 마리아 수녀(명혜학교 교장)
김용범(거주시설 명회원 사무국장)
이수진 수진엠마 수녀(성모자매회 담당)
엄정미 보나, 홍미영 안나, 유정선 카타리나(성모자매회원)



명혜학교 정규과정 수업

사회복지법인 <명휘원> 설립과 역사

이 수진앰바 수녀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미영 안나 <명휘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맡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방 아가페 수녀 <명휘원>은 1967년故 이방자 마리아 여사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설립한 교육 및 복지 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방자 여사는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비였고, ‘명휘(明暉)’는 영친왕의 아호죠. 그 당시만 해도 장애인 시설은 으레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있었고, 장애인 복지라고 하면 먹고, 입고, 자는 것 위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자 여사는 장애인에게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통해 사회 안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과, 목공과, 자수과, 편물과 등을 만들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러다가 1983년경 가톨릭 신자였던 이방자 여사가 김수환 추기경님께 <명휘원>을 천주교에서 맡아 운영해 주기를 청하셨다고 해요. 1985년부터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가 맡아 운영하게 되었고, 현재 모두 11명의 수녀(거주시설 5명, 명혜학교 4명, 해동일터 1명, 체육시설 1명)가 이곳에서 소임하고 있습니다.

<명휘원>의 구성과 조직

엄 보나 <명휘원>에는 여러 산하기관이 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방 아가페 수녀 장애인 거주시설인 명휘원과 명휘공동생활가정, 교육시설인 특

수학교 명혜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근로작업장 해동일터가 있고, 체육시설, 무료급식소로 운영 중인 종로분원도 있죠.

유 카타리나 굉장히 큰 기관이네요. 산하기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요?

방 아가페 수녀 거주시설 명휘원은 5명의 수녀가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집’이죠. ‘행복한 명휘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통합을 통한 행복한 삶을 목표로 서로 돕고 존중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희망’과 ‘사랑’ 두 개의 명휘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은 모두 여성이고 연령은 다양해요. 함께 숙식하고,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에 출퇴근하면서 자립을 준비합니다.

엄 보나 명혜학교는 교장 수녀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문 마리아 수녀 교육시설인 명혜학교는 사립 특수학교입니다. ‘명혜’는 영친왕의 아호 ‘명휘(明暉)’와 이방자 여사의 아호 ‘가혜(佳惠)’에서 각각 한 자씩 따서 만든 이름이에요. 특수교육대상자인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중·고등 정규과정이고 전공과가 있는데, 전공과는



명혜학교 전공과 수업

정규과정 졸업 후 2년 동안 직업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주 5일 다양한 교육을 통해 폭넓은 사회 체험을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어요. ‘역경을 이기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활인’이라는 교훈과 ‘가톨릭적 인성교육을 통한 건강한 자활인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성교육과 진로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지체 중복장애를 지닌 학생이나 지적, 발달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위해 심성교육 및 가톨릭 학교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학교 복음화를 위해 전례를 통한 인성교육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김용범 사무국장 해동일터와 체육센터, 종로분원은 제가 소개할까요? 해동일터는 장애인이 직접 작업하고 운영하는 근로사업장입니다. ‘해동’은 작업장을



방 아가페 수녀와 명취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는
성모자매회 담당수녀와 회원들

지어주고, 납품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안산의 대덕전자 故 김정식 헨리코 회
장의 호입니다.

체육센터는 1997년에 오픈했는데,
처음에는 지역 사회와의 통합을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다가 주변 지
역이 발전하면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
면서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리
모델링을 통해 수영장을 심리운동실과
스누젤렌실로 바뀌서 장애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심리 정서
를 지원하는 체육시설로 전환했어요.
스누젤렌은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고
안된 심리안정요법으로 주로 빛과 컬러
로 꾸며진 환경에서 다양한 감각자극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프로
그램입니다.

그리고 종로분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취원〉의 운영 정신

홍 안나 운영 주체가 수도회로 바뀌면
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취원〉의
운영 정신은 무엇인가요?

방 아가페 수녀 故 이방자 여사가 추구
했던 ‘자립’을 현재의 복지에 맞게 실현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소임이
라 생각합니다. 법인 설립의 기본 취지
가 변하지 않도록 잘 이어가고 지키면
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명취
원〉 운영의 핵심이지요.

〈명취원〉의 자랑거리

유 카타리나 〈명취원〉만의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
지 말씀해 주세요.

김용범 사무국장 보건복지부가 3년에 한
번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
는데, 2005년에 우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이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6년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 최초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도 받게
되었지요. 현재 〈명취원〉은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운영자가 바뀌
더라도 변함없이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게 큰 자랑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원생’, ‘생활인’,



거주시설 명회원

‘이용인’으로 불렸던 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고객’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애인에게 장사라도 할 셈이냐며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장애인 복지 방향이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바뀌면서 지금은 장애인도 권리를 가진 소비자이고,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선구자인 셈이죠.

홍 안나 이런 훌륭한 기관을 운영하는 수도회의 재속회원인 게 자랑스럽네요.

〈명회원〉의 당면 과제

엄 보나 정말 잘 운영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명회원〉을 맡고 계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방 아가페 수녀 거주시설 명회원은 늘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항목에서 A를 받는데, 단 하나 A를 받지 못한 것이 있어요. 환경 부분 중에 ‘시설이 얼마나 일반 가정과 유사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터가 넓어 개인 공간 면적은 최고 수준인데, 워낙 오래 전에 지은 건물이라 구조가 마치 군대 기숙사 같거든요. 광명시 철산동에서 이곳으로 온지도 벌써 33년이 되었으니 건물도 낡았고, 사회적 요구사항도 많은 변화가 있어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시급한 과제죠. 이사회에서도 계속 논의 중이고, 언제 실현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 카타리나 요즘 건축 비용이 워낙 비싸져서 여러 가지 힘드시겠네요. 명혜학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교장 수녀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문 마리리아 수녀 명혜학교의 가장 큰 바람은 독립된 학교 건물을 갖는 것이에요. 이사회에서도 학교 현실을 잘 알고 있어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건축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고려한다면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 아가씨 수녀 멀리서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힘든 얘기만 늘어놓은 것 같아 조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 더 많지요,

홍 안나 오늘 날씨도 춥고, 송년잔치 행사로 바쁘신데 긴 시간 <명회원> 이야기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자립을 돕는다는 기본 정신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현재의 복지정책에도 적응해 나가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수녀님들의 모습에서 가장 작고 가장 소외된 이들을 먼저 보살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명회원>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 비용 마련에는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으고, 기도로 청원해야 할 때라는 생각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더욱 바빠졌다.

※ 사회복지법인 명회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hw.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방 후기

엄 보나 <명회원>에 도착해 사무실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정교한 뜨개 작품들이었습니다. 모두 <명회원>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해 만든 것이라니, 소임 중에도 틈틈이 뜨개질로 <명회원>의 미래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수녀님 열정이 존경스러웠습니다.

홍 안나 점심 식사는 <명회원> 식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각자 음식을 받아와 스스로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유 카타리나 이방자 여사의 뜻을 기억하고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명회 기념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법인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해 이방자 여사가 손수 만드신 도자기, 칠보공예, 글씨, 그림 등과 함께 평소 사용하시던 유품이 정갈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 자립이 목표인 <명회원>의 설립 취지와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이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마음 한뜻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평생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주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하는
행복 메시지 중에서-

YOU, 희망의 순례자-
하느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수도회 소식

성탄선물 준비

2024. 11. 29.

- ▶ 수녀들이 농사지어 수확한 쌀을 우리 수도회 은인들에게 성탄 축하 선물로 드리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모아 포장작업을 하였다.



대림맞이 말씀의 전례

2024. 11. 30.



- ▲ 말씀의 전례를 하며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림의 첫 시간을 간절함으로 봉헌하였다.

입회식

2024. 12. 8.



- ▲ 새식구인 이진희 엘리사벳 자매의 입회를 환영하는 수련소 가족들.

성탄 밤미사
2024. 12. 24.



▲ 참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께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에 함께 한 은인 및 신자들과 성탄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하례식
2025. 1. 1.



▲ 2025년 신년하례식에서 여러 사도직과 분원공동체에서 온 수녀들과 새해인사를 나누었으며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는 덕담과 함께 '희년-희망의 순례자' 패를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 우리 수도회 문서선교 사도직 '성서와함께' 직원들과 수녀들이 새해 인사차 방문하여 함께 미사를 봉헌한 후 기념촬영을 하였다.

종신서원식
2025. 2. 13.



▲▶ 서울대교구 구요비 읍 주교님의 주례로 종신서원식이 있었다. 정결, 청빈, 순명의 삶을 종신토록 봉헌한 6명의 수녀들은 완전한 애덕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느님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서원하였다.



성모자매회 소식

제53차
정기총회
2024. 12. 9.



- ▲ 제53차 정기총회 중 김지선 필로메나 회장이 공동체 운영 사도직 세미나에서 성모자매회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 ▲ 총재무 한세열 요한 프란치스카 수녀가 후원회비 사용 명세를 보고하였다.

축성생활의 해
개막 미사
2024. 12. 22.



- ▲ 전국 남녀 수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축성생활의 해' 개막 미사에 성모자매회 임원 6명이 함께 하여 기쁨의 찬미를 드렸다.

월봉헌일

2025. 1. 13.



▲ 신년하례 미사 후 총원장과 부총원장 수녀로부터 ‘희년-희망의 순례자’ 패를 선물로 받으며 덕담을 나누었다.



◀ 수녀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점심을 본원 식당에서 맛있게 먹었다.

▶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의 ‘그리스도에게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들으며 올해에는 이웃에 필요한 사람, 성모님의 성덕을 키워나가는 재속회원이 되기로 다짐하였다.



준회원식
준비 피정
2025. 2. 8.



▲ 준회원식을 앞둔 19명의 자매는 하루 피정 중 이수진 수진엠마 담당수녀와 기록보존실의 조예진 순선스텔라 수녀의 강의를 들었다.

월봉헌일
2025. 2. 10.



▲ 강미옥 안토니아 자매 외 18명의 자매들은 미사 중 거행된 착복식을 통해 준회원이 되었다.



◀ 회원들은 성모자매회에서 9년 동안 소임한 이수진 수진엠마 수녀의 이임을 아쉬워하며 석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월봉헌일
2024. 11. 18.

▲ 부산 가톨릭 신학교정 김인한 알베르토 신부의 영명축일을 합창과 작은 선물로 축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제24차
정기총회
2024. 12. 16.



▲ 제24차 정기총회 중 회원들은 서울본부 회장이 공동체 운영 사도직 세미나에서 한 발표 영상을 시청하였다.



▲ 미사 중 말씀사탕을 뽑았다.



월봉헌일
2025. 1. 20.

◀ 이경옥 안토니아 담당수녀와 임원들은 회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였다.

| 시애틀 |



월봉헌일
2024. 12. 15.

▲ 먼길을 운전하여 일 년 동안 개근한 4명의 회원들.



월봉헌일
2025. 1. 19.

▲ 이형옥 크리스토폴 담당수녀와 회원들은 신년 하례식 후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의 강의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서 떡국을 나누고 윷놀이를 하며 친교를 다졌다.

| 남가주 |

▶ 2024년 10월 20일 오렌지카운티 가톨릭 성서모임 센터에 성모자매회 남가주지부가 설립되었다. 1월 월봉헌일에는 시애틀 회원 1명이 동참하여 총 7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월봉헌일
2025. 1. 19.

◀ 월봉헌 기도 후 나현오 현오레지나 총원장 수녀의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새해 첫 모임이므로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전배경 엠마 담당수녀와 회원들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칸가리 |



월봉헌일

2024. 12. 29.

▲ 희년 개막 미사 중 곡식과 과일로 예물을 봉헌하였다. ▲ 개막 미사에 참석한 회원들과 가족들.

▶ 새해 첫 월봉헌은 2024년 12월 리마 성 알 풍소 학교로부터 기증받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입상 앞에서 묵주기도로 시작하였다.



월봉헌일

2025. 1. 16.

월봉헌일

2024. 12. 8.



| 비야 엘 살바도르 |

◀ 이순옥 글라리아 담당수녀는 회원들에게 연말 선물을 증정하였다. 사진을 통해 회원들과 수녀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YOU, 희망의 순례자 하느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수진 수진엠마 수녀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한국교회 축성생활의 해’를 맞아 가톨릭평화방송과 수도회 장상연합회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청년을 위한 수도원 스테이 프로그램 『수도원에서 나를 찾다-YOU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는 주제를 「YOU, 희망의 순례자 - 하느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로 정하고 신자와 비신자 청년 모두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43명의 청년들은 잠시 분주한 일상의 삶을 멈추고, 자신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 기슭 한파로 뽀뽀 얼어붙은 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수도원을 찾은 청년들은 말씀카드를 뽑고 성경 읽기를 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2.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이수진 수진엠마 수녀는 일정 안내와 더불어 우리 마음을 가장 빠르고 쉽게 빼앗는 휴대폰 봉헌을 권고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 ‘깨어 있음’은 하느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김충희 호세아 수녀와 함께 한 찬미의 시간은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 깊은 곳의 사랑을 끌어올려 바친 감사의 시간이었고, 손상희 베드로 수녀의 '희망의 순례자, 그 길을 걷는 사람들' 강의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의 풍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여정을 성경 말씀 안에서 희망의 비추임으로 풀어주는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4. 모두를 깊은 침묵으로 초대한 성체조배. 주님 가까이 만나고 느껴보며 그분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5. 수녀들과 함께 노래로 바치는 성무일도는 주님의 선물인 '시간'의 거룩함을 맛보는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수녀들과 짝을 지어 식사, 대화하면서 자신을 열어 놓았고, 다시금 침묵과 음악의 조화 안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청년 수도원 체험을 통해 한국교회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당초 우리 수도회는 참가인원을 20명으로 예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평화방송에서 전달받은 신청자는 그 세 배를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의를 통해 신청한 청년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면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장소 변경, 스케줄 조정, 프로그램 수정 등으로 분주해졌지만 하느님을 찾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희망찬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분 안에 머물고자하는 청년들 여러분, 당신이 희망의 순례자입니다!

※ 청년 수도원 체험으로 진행된 「YOU, 희망의 순례자 - 하느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가톨릭평화방송의 영상 콘텐츠로도 제작되어 4월 20일부터 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은주	김기숙	김순남	김인배	김현미	민영재	박용성	서은정	신한철	오승목
고현순	김기영	김순례	김인숙	김현옥	민옥기	박용숙	서장	신혜숙	오아숙
고화영	김나리	김순자	김재곤	김현직	민화임	박용하	서지현	심금화	오용희
고희선	김나현	김순희	김재성	김형숙	박경숙	박은경	석남연	심명옥	오은미
공베로니카	김남진	김스테파노	김재원	김혜숙	박경아	박은숙	선군자	심복자	오은희
공덕귀	김대식	김승애	김재진	김호중	박계숙	박은영	선우	심아림	오이사
공석초	김데려사	김승옥	김정란	김효선	박귀자	박재숙	설한별	심은현	오장환
공은경	김동소	김시가	김정미	김효정	박근수	박정선	성양경	심재경	오정금
곽숙자	김동순	김시몬	김정선	김희숙	박금숙	박정애	성정아	심재정	오정재
곽신영	김두봉	김시옥	김정순	끄엉	박기분	박종철	성주경	심정희	오진숙
곽인애	김득빈	김시하	김정식	나계분	박기숙	박종희	손미산	안나	오창선
곽태호	김말순	김신	김정연	나석기	박기정	박준철	손병윤	안나순	오테성
곽현선	김명순	김안선	김정옥	나승경	박기주	박준희	손병윤	안대인	오현배
구영규	김명신	김안토니오	김정은	나윤진	박남희	박종근	손주영	안덕호	오현이
구제인	김명희	김애경	김정자	나이정	박노형	박지현	손철원	안상희	오현정
구현숙	김문금	김양자	김정재	나정민	박동욱	박진휘	손태산	안선영	오혜숙
구현주	김미경	김양희	김정화	남기란	박로사	박찰슬	손현수	안승옥	왕수현
권경희	김미나	김언태	김정희	남상유	박명숙	박하영	송경애	안요셉	왕인순
권귀옥	김미련	김연숙	김종국	남양순	박명자	박현	송규종	안장현	우원하
권기옥	김미원	김영경	김종석	남윤진	박명주	박현숙	송마음	안진이	우정
권분연	김미혜	김영숙	김종순	남일현	박문규	박혜원	송미현	안천일	원미자
권수정	김미환	김영신	김종식	노동옥	박문희	박홍제	송민선	안향신	위영환
권숙현	김미희	김영옥	김종윤	노소피아	박미라	박희성	송벨라네타	안현경	유금순
권요안나	김범수	김영자	김종인	노예리	박미숙	박희숙	송선옥	안현순	유문권
권일	김봉규	김영희	김종철	노윤희	박미정	박희원	송선주	안혜경	유병주
권진	김분자	김옥순	김종호	노지현	박상란	방미옥	송세리아	양경철	유보경
권태영	김상연	김옥자	김준섭	노치권	박서영	방숙명	송영래	양규진	유상순
권혜란	김상훈	김용	김준호	노카타리나	박석귀	배수경	송영라	양영은	유소영
권혜진	김상희	김용생	김지영	노현주	박선옥	배자남	송이현	양우진	유요안나
권홍사	김서애	김용원	김지현	라미나	박성심	백테레사	송주라	양윤주	유정선
권화집	김석용	김용준	김지희	류경	박세분	백미숙	송주숙	양원숙	유정현
권희정	김석준	김용진	김진숙	류원백	박세종	백성무	송한준	양혜리	유정희
기태석	김선	김용택	김진영	모윤선	박소연	백수영	송휘성	양혜선	유종희
길효림	김선애	김우택	김진원	문경화	박수산나	백승목	스테파니아	어미순	유지영
김강영	김선영	김웅	김진한	문국신	박수진	백진수	신동현	엄순덕	유진희
김건호	김선희	김유광	김창대	문명영	박수현	범상운	신두규	엄신영	유찬영
김경순	김성기	김유미	김채성	문명자	박아네스	변원복	신상우	엄윤정	유태안
김경신	김성열	김유석	김철	문미례	박안나	부정민	신성옥	엄정미	유한진
김경애	김성희	김유희	김철애	문복자	박안젤라	북이지영	신숙	엄종화	유혜령
김경자	김소각	김윤순	김철익	문석용	박양순	비비안나	신순옥	엄해옥	유희섭
김경환	김소옥	김윤영	김춘자	문애니	박연차	서경옥	신시영	여효정	유희자
김경희	김소정	김윤자	김카타리나	문은영	박영자	서바오로	신연주	오규훈	육희수
김광덕	김수연	김은순	김태권	문정순	박영철	서복순	신은경	오다운	윤건호
김광숙	김수재	김은실	김태옥	문지연	박영혜	서신원	신재옥	오두현	윤경란
김광자	김수희	김은영	김태호	문태성	박영희	서연주	신정택	오미경	윤경옥
김귀자	김숙	김은주	김평수	민병지	박용	서연희	신정화	오미숙	윤경임
김금련	김숙자	김은희	김현경	민영렬	박용덕	서영주	신지은	오미정	윤경희
김금주	김숙희	김익수	김현동	민영석	박용민	서예진	신창희	오수정	윤기영

윤나경	이미자	이영옥	이창순	장명심	정길환	조성재	차운지	최정희	현명옥
윤대수	이미정	이영주	이창현	장문명	정남숙	조성희	차재룡	최제원	현은아
윤대인	이미카멜	이영환	이철세	장민선	정다현	조수연	차정엽	최종락	현정일
윤명자	이미희	이옥희	이춘명	장병순	정대례사	조순례	차혜경	최종명	현진호
윤명철	이병석	이요안나	이춘자	장보향	정득남	조시영	차효경	최준태	형영란
윤미숙	이보리나	이용명	이춘화	장복녕	정미숙	조애연	채경숙	최지현	홍경의
윤미정		이용순	이치운	장봉	정민경	조엘렌	채경화	최진옥	홍문숙
윤민지	이봉희	이우용	이크레센시아	장성규	정복실	조영곤	채대기	최필선	홍미경
윤석우	이삼성	이유경	이태원	장성호	정상희	조영광	채미영	최해인	홍미영
윤성업	이상규	이윤비	이택중	장순애	정선희	조영섭	채연	최현주	홍보근
윤수진	이상민	이은경	이프리실라	장영자	정수원	조영아	채윤정	최혜식	홍보실
윤시림	이상일	이은미	이항구	장옥경	정수훈	조영이	채은경	최효숙	홍석진
윤종옥	이서준	이은홍	이해숙	장원실	정순남	조외숙	채현	추기협	홍수원
윤준서	이석순	이은희	이향희	장운숙	정애경	조우직	천금석	추춘득	홍순영
윤태규	이석운	이인영	이헌재	장운정	정연숙	조은경	천미자	케빈사장	홍영옥
윤행자	이선국	이장환	이현숙	장은유	정연택	조은정	천정순	태은경	홍은숙
윤현주	이선근	이재관	이현희	장이현	정영진	조인숙	최강은	투이	홍은정
윤희연	이선남	이재구	이혜경	장인화	정우영	조정미	최경옥	편프판치스코	홍인길
윤희자	이선숙	이재숙	이혜선	장재연	정원빈	조정순	최경원	표순분	홍지현
윤희라	이선영	이재순	이혜숙	장재원	정유미	조정자	최경자	표준희	홍진숙
윤희정	이선주	이재정	이혜진	장정자	정윤희	조정화	최경희	하가타리나	홍진일
음소연	이섬주	이재춘	이호진	장준일	정은미	조한수	최규분	하광희	황사라
이각근	이성구	이재현	이화모	장현수	정은영	조현선	최기석	하세청	황규택
이건호	이성우	이정민	이회남	장현진	정재욱	조현주	최레지나	하애란	황대중
이경란	이성춘	이정석	이효선	장희운	정자넵	조현주	최명자	하현정	황보요셉
이경민	이성혜	이정숙	이희덕	장희정	정정순	조형태	최미수	한경숙	황사라
이경배	이성훈	이정연	이희병	전광석	정정희	조혜옥	최미숙	한경옥	황수연
이경숙	이소라	이정윤	이희정	전상민	정준영	조효식	최병습	한구병	황숙자
이계호	이소연	이정은	임건호	전상희	정진문	좌동찬	최복녀	한귀자	황승옥
이관애	이소희	이정현	임마리아	전서현	정철원	주경숙	최복희	한만애	황애현
이광숙	이수정	이정호	임미숙	전세현	정춘실	주경자	최삼섭	한미리	황윤서
이광옥	이수진	이정효	임민아	전순옥	정춘자	주명자	최선희	한미영	황이선
이국준	이숙기	이정희	임복단	전에서	정칠태	주비오	최솔	한민옥	황혜진
이근	이숙희	이제식	임상무	전양주	정태아	주성희	최수용	한선교	효임골롬바
이기숙	이순연	이제연	임석수	전연신	정향란	주이정	최숙자	한수지	
이기연	이순영	이제인	임선애	전영민	정현숙	주재로	최승자	한인숙	
이기정	이순익	이종규	임수복	전영옥	정혜선	주하나	최승철	한재범	
이남경	이순희	이종용	임숙자	전영지	정홍진	지경미	최양수	한정희	
이남순	이승분	이종원	임승옥	전작	제갈승	진경옥	최연옥	한중원	
이덕아	이승연	이종임	임아네스	전재순	제봉성	진기순	최영림	한중희	
이데보라	이승철	이종호	임연순	전정민	제용호	진영서	최영주	한진규	
이도경	이시형	이주영	임영규	전종성	조건현	진영임	최영진	한평섭	
이두희	이신자	이준	임영신	전주리	조경배	진장자	최영철	함성미	
이마리아	이안나	이준택	임영진	전주윤	조규하	진혜경	최영철	함수현	
이말금	이애숙	이준희	임정희	전주희	조금옥	진호	최용자	함승연	
이명분	이양우	이종길	임정화	전춘실	조동호	차경자	최윤주	함오식	
이모니카	이연심	이지영	임지옥	전하정	조루시아	차문영	최윤지	허경재	
이문희	이영미	이지은	임학현	정가브리엘라	조리리	차상희	최윤희	허성일	
이미림	이영빈	이진선	임현철	정경란	조미순	차영우	최은경	허윤희	
이미선	이영수	이진영	임혜수	정경희	조보나파시아	차운규	최의순	허재영	
이미숙	이영숙	이진태	임화용	정광영	조비호	차운석	최정녀	허정옥	
이미애	이영실	이창기	장년수	정금록	조성연	차운수	최정은	허희	

국 내

영원한도움의성모의집 해돋이공부방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돋이 3길 412
(김 빅토리아 수녀)
051-416-1361

울주군나자렛공동체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화창7길 4-13
(오 까밀라 수녀)
052-257-0243

H.O.M in 사강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129
송산농협 본점 앞
(최 루치아노 수녀)
010-7617-0900

H.O.M in 수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163번길 10
(오 벨베뚜아 수녀)
010-9240-4627

H.O.M in 속초

강원도 속초시 중도문길 87
(김 아만다 수녀)
010-9711-1530

영원한도움의집(돈암동)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15길 99
한신희아파트 122동 1101호
(이 로마나 수녀)
010-8701-0369

해 외



베트남 VIETNAM

베트남 VIETNAM

174/35 Tam Châu, Tam Bình, TP Thủ Đức,
TPHCM 71300

Hồ Chí Minh, Vietnam
(Sr.Mari Ann, SOLPH / 김 마리앤 수녀)

84-076-9074-487(김 마리앤 수녀)
84-076-8780-247(김 시릴로 수녀)

rose-mira@hanmail.net(김 마리앤 수녀)
skgod299@hanmail.net(김 시릴로 수녀)

베트남 다낭 VIETNAM-DA NANG

Số 20 Trần Hữu Độ Phường khuê Mỹ, Quận Ngũ
Hành Sơn, TP Đà Nẵng
(DONGSIMKINDERGARTEN
NGU HANH SON DA NANG), Vietnam
(Sr.Maririta Kim, SOLPH / 김 마리릿다 수녀)

84-903-786-101(김 마리릿다 수녀)
84-076-9074-485(백 글라라 수녀)

kimheeja1214@gmail.com(김 마리릿다 수녀)
cl583@hanmail.net(백 글라라 수녀)



카자흐스탄 KAZAKHSTAN

Katolic Church Biazhan sal 145
Taldykorgan 140008, KAZAKHSTAN
(Sr.Eunyoung Theresa / 오 은영데레사 수녀)

7-7282-245-002

7-775-960-2731(오 은영데레사 수녀)
7-702-196-1770(한 살레시아 수녀)
7-775-694-2019(강 파우스티나 수녀)

eyt633@hanmail.net(오 은영데레사 수녀)
hanss@catholic.ac.kr(한 살레시아 수녀)
Srfaustina@hanmail.net(강 파우스티나 수녀)



페루 PERU

페루-칸가리

PERU-CANGARI, HUANTA-AYACUCHO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10, Huanta Ayacucho, PERÚ
(Hna.Eunkyung Agnes, Park / 박 은경아녜스 수녀)

51-932-449-968(박 은경아녜스 수녀)
51-958-733-136(김 마리후꼬 수녀)

cangariperu@hotmail.com
cafe.daum.net/solph-peru

페루-리마

PERU-VILLA EL SALVADOR, LIMA

Las Hermanas de Nuestra Señora del
Perpetuo Socorro
Apartado 0066, Lima 35, PERÚ
(Hna.Clarisa Lee / 이 글라리스아 수녀)

51-1-292-2327

51-937-411-504(이 글라리스아 수녀)
51-958-736-605(송 리사 수녀)

villaperu@hotmail.com
cafe.daum.net/solph-peru

페루-선교센터

PERU-CANTO GRANDE, LIMA
JR.CARLOS DE LOS HEROS 738
PUEBLO LIBRE 15084 LIMA, PERÚ
(Hna.Speranza shin / 신 스페란자수녀)

51-1-359-5855

51-920-753-030(신 스페란자 수녀)
51-986-501-518(박 임마누엘 수녀)

smsprz@hanmail.net(신 스페란자 수녀)
manuel592@hanmail.net(박 임마누엘 수녀)



필리핀 PHILIPPINES

필리핀-나보따스

PHILIPPINES-NAVOTAS

San Lorenzo Ruiz Parish(Tahanan ni Maria)
Phase 1-C Kaunlaran Village,
Navotas 1409 Metro Manila, Philippines
(Sr.Gabriela, SOLPH / 김 가브리엘라 수녀)

63-2-8652-7714

63-0969-174-6992(김 가브리엘라 수녀)
63-0939-332-4146(정 유딧 수녀)
63-966-271-6663 (김 루체수녀)
63-928-421-0722(최 요세핀 수녀)

gabi59@hanmail.net(김 가브리엘라 수녀)
ju395@hanmail.net(정 유딧 수녀)
sisterluce@hanmail.net(김 루체 수녀)
josephine.657@daum.net(최 요세핀 수녀)
cafe.daum.net/solphphilppin



조향순 소피아, 「성환」, 한국 경기도, 1999

후원문의

국 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우 | 02706
Tel 02-2171-1576(후원담당)
H.P 010-2082-6035
e-mail srjthan@hanmail.net

미주지부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U.S.A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U. S. A.
(Sr. Emma Jeon / 전 엠마 수녀)
Tel 1-714-521-1345
H.P 1-714-383-3585
e-mail emma2171@hanmail.net

후원금 송금

국내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038659-00305
국민은행 036137-04-005886
신한은행 100-027-67786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해외 선교 후원금

하나은행 121-910004-74004
국민은행 036137-04-001127
신한은행 140-006-010754

예금주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미국에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미주지부로 문의하시고,
한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02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5라길 2-18
2-18, Solsaem-ro, 15ra-gil, Seongbukgu Seoul 02706, Rep. of Korea
Tel 02-2171-1500 | Fax 02-2171-1629